

# 라면·빵·과자 등 줄인상...서민 밥상물가 비상

## 라면 1천원 시대

###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가공식품 가격 줄인상 김치·장류 가격도 올라...밀크플레이션 가능성도 “국제 곡물가 상승에 고통을까지 원가 부담 ↑”

추석 연휴가 끝나기 무섭게 라면과 과자, 빵, 김치 등 서민 먹거리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우선 대표적인 서민 먹거리인 라면 업계의 도미노 인상이 현실화하고 있다. 라면의 주재료인 소맥과 팜유 가격이 크게 오르며 가격 인상 압박이 한층 가중되자 주요 업체들이 2년 연속 제품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농심은 전날부터 신라면, 너구리 등 라면 26개 브랜드에 대한 출고가격을 평균 11.3% 인상했다. 농심이 라면 가격 인상에 나선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약 1년 만이다.

농심은 국내 영업이익이 24년 만에 적자를 기록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자 가격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심에 이어 팔도는 10월1일부터 팔도비빔면 등 라면 12개 브랜드의 가격을

평균 9.8% 인상한다.

오투기도 오는 10월 10일부터 진라면, 진비빔면 등 라면류의 출고가 기준 제품 가격을 평균 11.0% 올리기로 했다. 지난해 8월 가격 인상 후 1년 2개월 만의 재인상이다.

오투기 관계자는 “원재료값 상승에 고통을이 지속되고 물류비 등 국내의 제반 비용이 급등해 가격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과자값도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9년째 가격 동결을 지켜오던 오리온도 결국 파이, 스낵, 비스킷 등 16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15.8% 인상했다. 제품별 평균 인상률은 초코파이 12.4%, 포카칩 12.3%, 꼬북칩 11.7%, 예감 25.0% 등이다. 농심도 지난 15일부터 새우깡, 꿀파베기 등 스낵 23개 브랜드의 출고가를 5.7% 인상한다.

우유 가격도 이르면 다음달부터 0당 400~500원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우유뿐 아니라 치즈와 버터를 재료로 하는 빵,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 제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는 ‘밀크플레이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김치와 장류 가격도 오른다.

대상은 오는 10월1일부터 종가집 김치 제품의 판매 가격을 평균 9.8% 인상한다. 대상이 종가집 김치 가격을 올린 것은 올해 3월 평균 7% 인상한 이후 7개월 만이다.

‘정정원 된장’ 등 장류 제품 가격도 내달 1월 평균 12.8% 오른다. 장류는 올해 2월 평균 11.3% 올린 이후 8개월 만의 인상이다.

대상 관계자는 “가뭄, 고온, 폭우 및 장마 등 기상 여건 악화 등으로 불배추와 고랭지 배추 작황이 부진했고 무와 마늘, 양파 등 원재료도 고온에 따른 병충해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상황”이라며 “인건비 및 국제유가 상승 등 제조 경비가 올라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CJ제일제당은 국물요리 가정간편식(HMR), 장류, 김치, 파스타소스 등 일부 제품 가격을 평균 6~14% 인상하기로 했다.

식품업계는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원달러 환율까지 폭등하면서 재료 수입단가가 올라 원가 부담이 커졌다는 입장이다. 고물가 속 가공식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부담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 1400원대 치솟는 환율 급등까지...식탁 물가 ‘정점’ 언제쯤



1400원대로 치솟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 올 하반기 식탁 물가를 끌어올리는 주요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원화 약세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식품 기업의 원부자재 구입 부담이 커졌고 이는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증권가에서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바이든 행정부가 올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달러 강세 현상을 용인할 수 있는 만큼 연말까지 환율 상승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16일 전날보다 5.3원 오른 1399.0원에 개장했다. 3거래일 연속 연고점을 찍었고 장중 고가 기준으로 2009년 3월 31일(1422.0원) 이후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환율 상승에 식품 업계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수입 원부자재 구매 타이밍을

원·달러 환율 1400원 턱밑까지 치솟아...식품기업, 환손실 불어나 해외 수입 의존도 높은 사료·밀가루 등 구입비 증가로 고민 ↑

증권가 “美, 중간선거 강달러 용인...올 연말까지 환율 상승 예상”

늦추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이 식품 업계 설명이다.

구매 시기를 늦춘다고 해도 환율이 지속적으로 오른다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며 원부자재를 들여오는 상황을 직면할 수 있어 ‘환율 상승폭 만큼 앞서서 돈을 까먹고 있다’는 푸념도 들린다.

올해 1월 3일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은 1191.8원 수준에 거래됐다. 최근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인 원·달러 환율 1394.8으로 계산하면 올 초 대비 200원 가량 높아진 셈이다.

가령 A사의 경우 올해 경영계획 수립시 기준 원·달러 환율을 1290원으로 설정했는데 모든 변수가 일정하다는 전제로 10%(129원) 오를 경우 연결회사의 세후 이익은 148억1310만원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즉 환율이 1410원을 돌파할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연간 손실액이 연간 148억 원에 달하고 환율 상승에 따른 원부자재 구입 비용 등을 더할 경우 유·무형의 손실액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환율 상승에 따른 식품 분야별 영향을 살펴보면 먼저 국내 축산업 분야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사료용 곡물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환율 상승에 따른 후폭풍이 가장 먼저 나타나기 때문이다.

사료용 곡물 수입 단가 상승은 돼지고기를 비롯해 닭고기·소고기 등의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 육류 가격 상승은 이를 가공한 햄·소시지 등 가공식품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외식 업계도 원가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한다.

대한제분과 CJ제일제당, 삼양사 등 밀가루 제조사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국내 제분 업계는 밀가루 주원료가 되는 소맥을 대부분 미국과 호주에서 구매하는데 최근 국제 밀 가격과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며 구입비 부담이 크게 늘고 있어서다.

밀가루 제조사의 경우 국제 밀 가격 동향을 살피며 B2B(기업간 거래) 제품 공급 단가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밀가루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영향은 밀가루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될 수 밖에 없다.

밀가루 가격 상승은 과자·빵·라면 등 주요 가공 식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미 제품 가격을 올린 기업들도 원가 부담이 심화되며 수익성이 급속도로 훼손될 경우 또 다시 제품 가격 조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들린다.

증권가에서는 환율 상승이 올 연말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으며 국내 식품 업계의 마진 하락 현상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 연준과 행정부는 자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달러 강세 기조를 용인할 수 있다”며 “겨울철 유로화 약세 심화 등을 고려할 때 환율의 유의미한 방향성 전환은 연말까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노동질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은 금융 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달러 강세에 따른 자국 통화의 평가절하 현상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했다. 이어 “단기간 달러 강세 기조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음식료품 업종은 마진 하락 현상을 겪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b>호남신문</b> i-honam.com		<b>대표전화 (062) 229-6000</b>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b>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b>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b>동부취재본부</b>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b>서울취재본부</b>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b>기사제보 (062) 222-2580</b>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small>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small>		
<small>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small>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